

2025. 9. 15

해외동향부 (제 7250)

- 주요 뉴스: 9월 FOMC 예정, 0.25%p 인하 확실히. 금리 전망 및 파월 발언 등에 관심
 - 미국 재무부, 중국과 고위급 회담 준비. 중국은 미국산 일부 반도체 반덤핑 조사
 - 중국 8월 위안화 신규대출, 예상치 하회. 인민은행은 은행의 국경 간 대출 관리 강화
 - 일본 주요 언론,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시기 늦춰질 전망. 정치적 불확실성 반영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금리인하 기대 증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6%], 달러화 약세[-0.2%],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9월 금리인하 확실히 등으로 기술주 주도의 상승 지속
유로 Stoxx600지수는 예상에 부합한 ECB 회의,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1.0%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고용 둔화 우려,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하락
유로화 가치는 0.2% 상승, 엔화 가치는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하 전망 강화 등이 배경
독일은 ECB 금리인하 관측 후퇴 등으로 5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5% 상승, 한국 CDS 하락

		9/12일	9/5일	전주말대비			9/12일	9/5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584.3	6,481.5	+1.59%	국채 금리 10y	미국	4.06%	4.07%	-1bp
	유럽	554.84	549.21	+1.03%		독일	2.72%	2.66%	+5bp
	중국	3,870.6	3,812.5	+1.52%		영국	4.67%	4.65%	+3bp
	일본	44,768	43,019	+4.07%	CDS 5y	한국	18bp	19bp	-1bp
	한국	3,395.5	3,205.1	+5.94%		중국	38bp	41bp	-3bp
환율	달러지수	97.55	97.77	-0.22%	위험 지표	EMBI+	357	357	+0bp
	유로화	1.1734	1.1717	+0.15%		VIX	14.76	15.18	-2.77%
	엔화	147.68	147.43	-0.17%		WTI유	62.69	61.87	+1.33%
	위안화	7.1250	7.1328	+0.11%	원자재	구리	458.9	448.3	+2.36%
	원화	1,395.4	1,388.4	-0.50%		금	3,643.1	3,586.7	+1.5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9월 FOMC 예정, 0.25%p 인하 확실히. 금리 전망 및 파월 발언 등에 관심

- 9/16~17일 FOMC가 열릴 예정이며, 0.25%p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는 최근의 고용 둔화, 전문가 전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 회피, 백악관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으로 연준 독립성에 대한 위협 차단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
-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공개적으로 금리인하에 반대 의사를 피력할 것으로 예측. 아울러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소지.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하여 빅컷(0.50%p)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
- 한편, 시장에서는 9월 FOMC 이후의 금리 전망에 더욱 많은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점도표가 금년 및 내년 각각 2회의 금리인하 신호를 보낼 것으로 관측(Bloomberg Economics). CME의 FedWatch는 내년 말까지 총 5회(금년 9, 10, 12월 및 내년 3, 6월. 각 0.25%p)의 금리인하를 예상
- 파월 의장의 경우 기자회견에서 향후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는 중립적 시각을 피력하고, 특히 고용 둔화 및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하는 경제 여건을 주된 이유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부, 중국과 고위급 회담 준비. 중국은 미국産 일부 반도체 반덤핑 조사

- 재무부는 베센트 장관이 금주 스페인에서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 무역, 경제, 안보 등과 관련하여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 일부 언론은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 접촉이 활발한 가운데 이번 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며, 실제로 양국 정상회담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분석
-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일부 반도체(아날로그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를 결정했고, 미국이 자국산 집적회로(IC)에 대해 내린 조치의 차별 여부도 조사할 방침. 그리고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수출규제 명단에 추가한 것에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 아울러 중국에 차별적 금지 혹은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상황을 검토한 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

■ 미국 트럼프, 대규모 러시아 제재 가능. 다만 NATO의 러시아産 원유 구매 중단이 요구

-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이는 NATO가 러시아産 원유 구매 중단 등의 비슷한 조치를 취할 때 가능하다고 부연. 다만 헝가리 등 일부 NATO 회원국은 러시아産 에너지에 대한 강력 제재를 반대

■ BlackRock,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이 재정 우려 때문이라는 의견은 과도한 해석

- 알렉스 브라지어 글로벌 투자 및 포트폴리오 헤드는 최근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한다고 평가. 다만 이를 주요국 재정 우려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며, 투자자들이 추정하는 중립금리 수준이 올라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

■ ECB 드갈로 위원, 추가 금리인하 가능. JPMorgan은 12월 금리인하 예상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드갈로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 한편, JPMorgan은 ECB의 추가 금리인하 시기를 이전(10월)에 비해 다소 늦은 12월로 전망

■ 중국 8월 위안화 신규대출, 예상치 하회. 인민은행은 은행의 국경 간 대출 관리 강화

- 8월 위안화 신규대출은 5900억위안으로 전월(-500억위안)의 감소에서 증가 전환되었으나 예상치(9000억위안) 대비로는 낮은 수준. 이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정부의 과잉생산 억제 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한편 인민은행은 은행들의 국경 간 위안화 대출을 적절하게 규제할 방침.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경기 사이클에 따라 자본 흐름을 조절하는 ‘역주기 매커니즘(cyclical countermeasure)’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

■ 일본 주요 언론,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시기 늦춰질 전망. 정치적 불확실성 반영

- 닛케이 등은 차기 총리 선거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고려 시 금리인상 시기가 당초 예상(10월) 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 현재 금리 스왑 시장에서 10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30%대 초반. 금년 12월 및 내년 1월 가능성을 합하면 약 50%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15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ECB 라가르드 총재 발언, 중국 8월 산업생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전 세계적 정부 부채 스트레스, 4가지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확산될 우려 - Reuters

(How government debt stress could roll across world markets)

- 여러 국가에서 정부 재정 우려가 증가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반응은 주로 채권시장에 국한. 하지만, 다음의 4가지 방식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 첫째, 장기 차입비용 증가로 주식, 주택 시장, 기업 자금조달 등에 부정적 영향
- 둘째, 프랑스 예산 혼란 등으로 미국 자산 다각화를 위한 유럽 투자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유럽 자산시장에 타격. 셋째, 빅테크의 대규모 AI 투자가 장기 자본비용 상승에 반응하며 주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넷째, 일본의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및 금리인상 예상 등으로 3조 달러 이상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및 이에 따른 해외 자산 매도 증가

■ 연준 독립성 논란, 단순 금리 인하에서 책무 범위 재정의로 확대 - Financial Times

(The battle for the Fed is about much more than interest rates)

-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준이 금융규제와 양적완화 시행 과정에서 정치화되었고 본래의 사명에도 충실하지 못했다고 비판. 특히 양적완화는 경제적 효과도 불분명한 가운데 자산시장 왜곡,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 이에 연준이 자산매입을 중단하고 책무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
- 이러한 비판은 일부 타당한 면도 있지만, 연준 독립성에 대한 백악관의 공격은 불쾌하고 우려되는 사안 투자자들은 향후 ▲연준 독립성 유지 여부 ▲국채매입 중단 가능성 ▲금리 인하와 자산 축소 병행 가능성, ▲다른 중앙은행에 미칠 영향 등에 주목할 필요. 연준을 둘러싼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

■ 미국 기업의 인력 비축, 노동시장 변화 시 대량해고로 전환될 우려 -블룸버그

(Labor Hoarding Looks Close to a Painful End)

- 다수의 기업은 팬데믹 기간 신규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인력비축(labor hoarding)' 유지. 이는 실업률 상승을 억제. 하지만 최근 숙련 노동자는 임금인상 둔화에 직면하면서 이직에 소극적. 반면,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급여 부담이 적은 신규 노동자를 선호
- 실제로 숙련된 중장년층 노동자들은 구직 및 해고의 압력에 직면. 그 동안 고용안정으로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기존 노동자들의 해고가 이어질 경우 완만한 실업률 상승이라는 펜더멘탈은 악화될 소지

■ **미국 트럼프의 관세정책, 대법원 위법 판결 시 재정 계획은 위기에 직면 - 블룸버그**

(Tariffs Face Legal Threat That Puts Trump's Deficit Plan at Risk)

- 트럼프는 재정부채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관세정책 시행. 실제로 '25 회계연도가 1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관세정책 이후 세수입이 1,650억달러 늘어 전년비 950억달러 증가. 그러나 최근 연방 항소법원은 관세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고, 지금은 대법원이 이와 관련된 항소 심리를 진행 중
-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상고에서 패소 시 상당한 규모의 환급금을 지불할 필요. 물론 패소할 경우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한 우회적 관세 부과 시도는 지속될 전망. 그러나 추가 관세 부과 시도는 시장 변동성 확대, 경제 성장 저해, 노동시장 둔화 등에 의한 세수 감소 및 재정적자 확대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 **미국 기업, 무역전쟁에 따른 비용 상승 등으로 고용 축소·해고 확대 - Financial Times**

(US companies put brakes on hiring after Donald Trump's tariffs hit)

■ **연준의 위험 자산 영향력, 연금을 통한 ETF 자동 매입 증가 등으로 점차 감소 - 블룸버그**

(Wall Street Rides a \$1 Trillion Money Wave as Fed Test Looms)

■ **미국 모기지 금리 하락세, 경기침체 가능성 등으로 강화될 가능성 - WSJ**

(Mortgage Rates Are Finally Falling. Here's Why They Can Move Fast.)

■ **미국의 동맹국, 미국의 강경책 지속으로 신뢰 감소, 회복도 어려울 소지 - 블룸버그**

(America's friends will never trust the US again)

■ **유럽의 다차원적 위기에 대한 긴박감 결여, 규제 유연화 등 개혁이 필요 - The Economist**

(Europe has an urgency deficit)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